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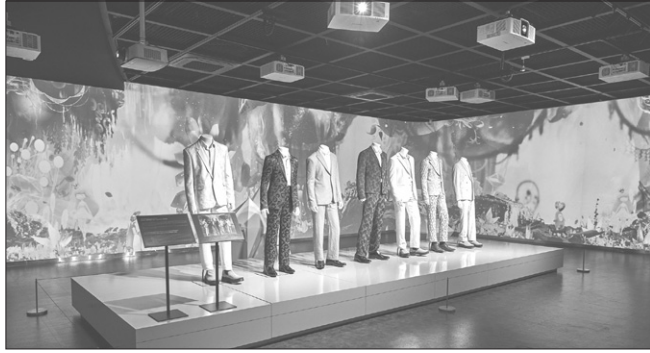
익산 보석박물관 '퀸즈 컬렉션' 성황

이랜드뮤지엄과 첫 교류 전시... 3만명 이상 다녀가·작년 대비 방문객 88% 증가 영국 왕실 소장품·BTS 무대의상 등 선보여... 세계 문화예술산업 소장품 가치 알려

익산시 보석박물관의 기획전시 '퀸즈 컬렉션(QUEENS COLLECTION)'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보석박물관은 지난 9월 7일 전시회 개최 이후 3만 명 이상이 방문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보석박물관 방문객수 대비 88%가 증가한 수치다. 올해 상반기 월 평균 대비 252%가 증가했다.

퀸즈 컬렉션은 영국 왕실에서 실제로 사용된 주얼리와 복식, 애장품 등을 통해 세계 문화예술산업 소장품의 가치를 알리기 위한 전시다.



주요 전시품으로는 엘리자베스 2세가 공주시절 착용했던 무도회 드레스, 마거릿 공주의 이쿠아미린 귀걸이, 빅토리아 여왕의 애도 모자와 장신구, 윈저 공작의 의복과 애장품, 찰스 왕세자와의 결혼식에서 다이애나비가 착용했던 웨딩 베일 등이 있다.

또 케이(K)·문화산업을 대표하는 소장품도 선보이고 있다. 방탄소년단(BTS)이 한국인 최초로 그래미 어워

드 축하 무대에서 입었던 의상을 '다이너마이트 룩스(Dynamite Looks)' 특별관에 전시하고 있다.

보석박물관은 영국 왕실 소장품부터 방탄소년단의 의상까지 남녀노소 만족할 수 있게 구성된 전시를 인기 요인으로 꼽았다.

이번 전시회는 무료로 운영되고,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10분까지 입장

익산=이재춘 기자

익산시청 직장운동부, 메달 행진 이어가

전국체육대회 금 3·은 3·동메달 1 획득 펜싱부 간판 권영준 선수 대회 2관왕 달성

익산시청 직장운동부가 제105회 전국체육대회에 출전해 뛰어난 기량을 선보이며 올해 계속된 메달 행진을 이어갔다.

익산시청 육상·펜싱 선수들은 지난 11일부터 17일까지 김해시 등 경상남도 일원에서 열린 전국체육대회에서 금메달 3개, 은메달 3개, 동메달 1개로 총 7개의 메달을 획득했다.

11일 대회 첫날 2021 도쿄올림픽과 2023 항저우아시안게임 펜싱 메달리스트인 권영준 선수가 남자 에페 개인전에서 금메달을 따내며 최강자로 건재함을 알렸다.

13일에는 남자 해머던지기 황미르 선수와 여자 해머던지기 김태희 선수가 나란히 값진 은메달을 획득했으며, 15일에는 여자 원반던지기 신유진 선수가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16일에는 남자 펜싱 에페 단체전 권영준, 양윤진, 정병찬 선수가 접전 끝에 짜릿한 금메달을 거머 쥐었다. 권영준 선수는 이번 대회 개인전과 단체



전을 모두 휩쓸며 2관왕을 달성했다. 이날 남자 육상 세단뛰기에서 유규민 선수가 당당히 금메달을 확정지었고, 육상 1500m에서 김용수 선수가 은메달을 차지해 이번 대회를 마무리했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이번 대회에서 우리 선수들이 일군 결과는 시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익산시의 위상을 드높였다"며 "선수들의 열정과 노력에 깊은 감사와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익산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조성 박차

설계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사용자 중심 센터 건립 위해 전문가들과 머리 맞대

익산시가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의 차질없는 건립을 위해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댔다.

익산시는 17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정현을 익산시장과 시의원, 전문가 등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익산시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건립 설계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센터 설계 계획을 공유하고, 완성도 있는 용역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 이어 발달장애인과 보호자, 지역 주민을 위한 센터를 건립하기 위해 심도 있는 논의가 오갔다.

이날 익산시는 중간보고회에 앞서 장애인 거주시설 15개소와 장애인 이용시설 21개소 시설장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설계용역 진행사항을 설명하고, 건립 추진 사항 등을 논의했다.

시는 사용자 중심의 센터 건립을 위해 중간보고회와 간담회뿐만 아니라 다양한 의견 수렴에 힘쓰고 있다.

지난 5월 용역 착수 이후 익산시 등록 발달장애인 대상, 센터 건립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또한 익산시 공공건축자문위원회 자문회의와 우수 운영기관 벤치마킹 등을 거쳤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오늘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신중하게 검토해 완성도 있는 설계 용역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발달장애인과 보호자들을 위한 공간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익산시는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건립에 따른 시비 부담 경감을 위해 국도비 확보에 매진하고 있다. 2022년 전국 최초로 국비 3억 원을 확보한 이후 현재까지 25억 5000만 원을 확보했으며 올해 전북특별자치도 특별교부세 10억 원을 확보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힐링 콘서트 성료

국립군산대 평생교육원, 팍페라 그룹 빅토리아 초청 공연

국립군산대학교 평생교육원(원장 박규연교수)에서는 지난 15일 은과 물빛 다리 무대에서 팍페라 그룹 빅토리아를 초청하여 제3차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힐링 콘서트'를 성황리에 열었다.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힐링 콘서트는 지역사회와 함께 상생하는 국립대학교로서 대학이 지역 사회의 문화 발전 및 지역사회의 기여를 목적으로 국립대학교육사업(지자체-대학 연계형 생애주기 역량교육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며,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12월까지 총 5회 진행될 예정이다.

제3차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힐링 콘서트에는 쌀쌀한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군산시민들이 참여하여 열띤 호응 속에서 팍페라 그룹 빅토리아의 아름다운 선율을 관람하며 힐링하는 시간을 가졌다.

천상의 아름다운 음색의 소프라노와 굽고 화려한 음색의 테너가 만나서 다양한 음악의 목소리로 환상적인 하모니를 만들고 폭발적인 가창력과 다양한 레퍼토리로 관객의 마음을 사로잡는 팍페라 그룹 빅토리아는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축하무대로 전 세계 인의 주목을 받으며 데뷔하였다. KBS 불후의 명곡, KBS 열린음악회, 등 정통 음악프로그램에서 활약하였으며, 전국적인 공연활동을 통해 팬들과 소



통하고 있다. 또한 대한민국 최초로 팍페라와 전자바이올린과 콜라보하여 '팍페라계의 혁명'으로 불리고 있다.

국립군산대학교 박규연 평생교육원장은 "우리 대학은 지역 사회와 함께 상생하는 국립대학교로서 지역문화 발전, 지역사회 기여 및 환원을 위해 지속적 노력을 하고 있으므로 시민들의 많은 관심을 당부하고, 이번 힐링 콘서트를 통해 지역민들이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휴식과 힐링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제4차 콘서트는 제이란테 오케스트라를 초청하여 오는 24일 은과 물빛다리 무대(기상악화시 국립군산대학교 고촌관홀)에서 개최한다.

이 행사는 지역민들에게 문화적인 즐거움과 휴식을 선사하며, 지역문화 발전과 지역사회와의 교류를 촉진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군산=이재춘 기자

군산시, 행안부 주관 '국민행복민원실' 재인증

군산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4년 국민행복민원실' 재인증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

'국민행복민원실'은 행정안전부가 전국 245개 광역, 기초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국세청 등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하며, 민원실 내·외부 환경, 민원 서비스 만족도, 직원 친절도 등 4개 분야 26개 항목을 평가해 우수기

관을 선정하고 그 지위를 3년간 인증해 주는 제도이다.

군산시는 2022년 최초 인증을 받았으며, 이번 재인증으로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년간 국민행복민원실 지위를 유지하게 되었다.

이번 심사에서 군산시는 △무인민원발급기 위치 확인 QR부호 제작 △민원인 쉽터 개선 △민원 취약계층 및

유·아동 동반가족을 위한 아름다운 배려창구 운영 △안전한 민원실 환경 조성을 위한 휴게공간 및 실내정원 개선 △스우유실·책카페·인터넷카페 등 다양한 편의시설 운영을 통해 시민 누구나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민원실 환경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군산=이재춘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전주매일 캠페인

고스란히 남아있는 백제 장인의 숨결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은 익산 왕궁리 유적에 있는 오층석탑이다. 1965년부터 1966년에 보수를 위한 해체와 복원을 실시하였고 이때 흙 속에 묻혀 있던 돌로 만든 기단부가 발견되었다. 1층 옥개석 상면과 기단부 심초석 상면에 마련된 사리공에서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 사리장엄구 '국보 제123호'를 수습하였다. 창건에 대한 문헌 기록이 없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추정된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의 건립 연대는 백제 시대에서 통일신라, 고려 시대 초까지 논란이 다양하다. 1989년부터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을 중심으로 본격적 발굴 조사를 실시한 결과, 백제 시대에 경영되었던 궁성이 폐기되자 궁성 터에 탑·금당·강당을 남북 일직선으로 배치한 백제의 전형적인 1탑 1금당식 사찰을 지은 것으로 밝혀졌다. 본래 목탑이었던 것이 현재의 석탑으로 바뀌었고 백제 멸망 이후에도 범등을 계속 이어 갔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은 1963년 1월 21일 보물 제44호로 지정되었고, 1997년 1월 1일 국보 제289호로 승격 지정되었다가 2021년 11월 19일 문화재청 고시에 의해 문화재 지정번호가 폐지되어 국보로 재지정되었다.

**출처: 한국학중앙연구원-향토문화전자대전